

도희
수능사회

The Last Dance : 수능 한국지리 행동영역 모음집

<수능 한국지리 문제풀이 10계명>

1.특이 값 선 처리-후 나머지 처리

2.조금이라도 모르겠거나 애매한 건 PASS

3.처음 보는 형식/지표의 문제는 일반성(=개연성, 국어에서 문학 선지 받아들이듯 하자)을 기반으로 추론한다.

4.계산 요구하는 선지는 후순위로. 해야만 답이 나온다면 값을 후려쳐서 푼다

5.평가원은 끼인 값을 싫어한다. AvsB 비교를 한다면 그 둘이 양극값일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 하에 추론하면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6.본인이 완전히 외운 것>본인의 상식에 기반한 추론>>>>넘사벽>본인이 애매하게 외운것>본인의 뇌피셜이다. 애매하게 외워서 딱 모르겠으면 그냥 그걸 버리고 백지상태에서 푼다는 마인드로 임하자.

7.Refine 값을 잘 활용하자.(만약 모른다면 기공사 전자책을 보...ㄷ..) 5번과도 이어지는 것이지만, 정 안 풀리면 케이스 분류라도 해가지고 잘 짚어 맞히면 된다. 수능은 맞히면 장땡이다 과정은 의미 없다.

8. 발문은 항상 눈이라도 훑고 들어가자. 특히 옳은 것/옳지 않은 것은 좀 크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가 뭘 묻는지라도 인지를 하고 문제에 진입하는 게 꽤 크다.

9. 주석 좀 잘 확인하자. 주석 하나를 읽느냐 못 읽느냐에 따라 갈린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10. 시간 남으면 무조건 검토하자.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다. 오독, 오폐이 했을 가능성 분명히 있다. 특히 손가락 걸고 넘어간 문제는 다른 선지까지 다 체크해야 하고,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변별용 킬러문제는 다른 선지, 다른 케이스들을 일일이 세서라도 100%맞는지 체크해보도록 하자.

*고지리지 행동영역

•고지리지는 항상 아래처럼 이분법으로 나누어 외우고 문제를 푼다. 백과사전식 ↔ 상세 서술식, 전기 ↔ 후기, 관찬 지리지 ↔ 사찬 지리지 개념이 이분법 아래 정립되면 해석과 문제 풀이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리지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선 첫 번째 제시된 자료가 백과사전식, 상세 서술식 중 어떤 형식으로 서술되어있는지 파악한 후 나머지 자료는 반댓값 취급함으로써 해석 속도를 높인다.

•택리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지이면서 내용과 출제 포인트가 많아 단독 출제 가능성이 크고, 내용 일부를 제시하고 제시된 내용 자체에 관해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가거지의 네 조건은 반드시 외워두어야 한다. '지리'는 풍수지리 명당, '생리'는 경제적 이점, '인심'은 주민들의 인성 또는 사회 분위기, '산수'는 풍경, 경치로 외워두면 된다. 어떤 조건인지 바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헛갈린다면, 비문학을 읽듯이 끊어 끊어 키워드를 찾아내 푼다.

•아래의 자주 출제되는 지도들은 주로 지도 전체 이미지만을 제시하며, 매번 똑같은 이미지로 출제되므로 지도를 보고 즉각 주요 특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이미지와 특징을 연결 짓는 연습을 자주 해놓는 것이 좋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천하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한기의 '지구전후도'

•대동여지도의 해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습을 충실히 해둔다. 지도표의 기호를 보고 지도 내의 주요 장소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하며, 방점을 통한 거리 계산을 바로바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대동여지도 문제는 시험장에서 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다. 대동여지도에 자연 지리의 개념을 복합하여 출제할 수 있으므로, 자연 지리의 개념을 확실히 공부해 두는 것은 고지도 문제에서도 중요하다.

•분수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대동여지도 문제에서, 내린 빗물이 지도 내의 어디로 흘러갈지를 묻거나, 특정 하천이 흘러가는 방향 또는 어떤 바다로 흘러갈지 또는 하천의 하구가 어디인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 인식 행동영역

•국토 주요 지역의 수리적 위치와 특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빈출 되는 지역인 우리나라 4극의 수리적 위치를 정확히 알아두고, 중요한 출제 지점인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는 위치뿐만 아니라 특성, 특징까지 정확히 외워두어야 한다. 외우지 못해 시험장에서 추리하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푸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영역을 주제로 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지도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 영해 기선, 영해선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수, 영해, EEZ의 범위를 빠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섬 지역의 위·경도값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면, 각 섬의 생김새를 외워두는 편이 좋다. 보통 섬의 촬영 또는 지도상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편이므로 하나의 해결 방안 이 될 수 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빈출 되지 않는 생소한 섬이 출제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수리적 위치를 정확하게 외워두는 것이 좋다.

•본토이지만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 영일만, 울산만, 영해의 범위가 기선으로부터 3해 리인 대한해협과 같이 일반적인 영해 설정이 적용되지 않는 구간이 있으므로 통상· 직선 기선이 적용되는 지역과 구간을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섬인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는 통상 기선이 적용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자. 위 섬들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본토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직선 기선이 적용된다.

•수리, 지리, 관계적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기본으로 돌아가 각 위치의 개념을 베이스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수리적 위치는 위도·경도로 표현되는 위치, 지리적 위치는 지형지물로 표현되는 위치, 관계적 위치는 주변국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위치이다.

•무해통항권을 항상 유념하고 간과하지 말자. 무엇이든 허가가 필요한 영해를 별도의 허가 없이 지날 수 있도록 하는 변수와 같다. 자칫 깜빡하면 '타국의 상업 선박이 별도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였다.'를 잘못된 사례로 고를 수 있다

* 자연지리 행동영역

<암석>

• 변성암(편마암 등), 화성암(화강암, 현무암 등), 퇴적암(석회암 등)이라는 한국 지리의 3대 암석의 형성 과정을 반드시 외워야 한다. 다만, 한국 지리는 지구과학이 아니므로, 정확한 성분과 형성 과정을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적 성인만 알고 가는 것이 옳다.

지질 시대표

• 지각 운동과 지질 시대 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 무엇이 형성되었다.'라는 형식으로 외우는 것이 좋다. 문제에서 지질 시대 표 전체를 제시하였다면, 주로 지질 계통과 주요 지각 운동에 빈칸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이때, 먼저 지질 계통의 각 칸에 '변성 - 조선 - 평안 - 대동 - 경상 - 3 - 4'를 순서대로 써놓고 시작하면 주요 지각 변동은 지질 시대를 보고 각 지질 계통에 맞춰나가면 되므로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지각 운동>

• 지각 운동 중에서는 송림 변동, 대보 조산 운동, 불국사 운동, 경동성 요곡 운동이 가장 자주 출제되며 중요도가 아주 높다. 이들은 한반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으며 출제 포인트가 다양하므로, '언제, 어디서, 어떤 영향을 주어, 무엇이 형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꼭 외워두자. 시험장에서 '중생대 - 송대불, 신생대 - 경동성, 화산'이 즉각 떠오를 수 있도록 하자.

<빙기/간빙기(후빙기)>

• 빙기와 간빙기(후빙기) 간의 비교가 주가 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 변화 문제는 빙기와 간빙기(후빙기)가 서로 정반대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간빙기(후빙기)를 기준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하는데, 간빙기(후빙기)는 현대의 기온 상승과 특성이 같으므로 외울 때나 시험장에서 떠올릴 때 수월하기 때문이다.

<1차/2차 산맥>

• 1차, 2차 산맥의 형성 원인과 과정,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1차 산맥은 신생대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한 산지이며, 동쪽으로 치우쳐진 융기 축과 동해안을 따라 형성되었으며,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강하다. 2차 산맥은 중생대의 송림 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으로 인해 생긴 지질 구조선을 따라 침식이 진행되며 생긴 산맥이며,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하다. 산맥도에서 2차 산맥은 1차 산맥에서 남서쪽으로 뺏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흙산/돌산>

•흙산과 돌산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빙기 - 간빙기(후빙기) 비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정반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흙산과 돌산의 위치 또한 맞추도록 출제하면 난도가 상승하게 된다. 주요 흙산(지리산, 덕유산, 오대산)과 돌산(금강산, 북한산, -악산)의 위치는 정확히 알아두자.

<고위 평탄면과 침식 분지>

•고위 평탄면과 침식 분지 문제는 주로 지형도를 제시하고 어떤 지형인지 맞히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두 지형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지형이므로 둘을 지형도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고위 평탄면은 등고선 수치(=해발 고도)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며, 지형도 중심부의 고위 평탄면인 부분은 등고선 간격이 주변 부분보다 넓다. 주변부는 일반적인 산처럼 고도가 높아지다 중심부는 경사가 완만해지며 평탄한 지형이 있는 것이 마치 푸딩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침식 분지는 고위 평탄면과 비슷하게 중심이 평탄한 지형이지만, 고위 평탄면과는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등고선 수치(=해발 고도)가 높아지며 그릇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화산 지형>

화산 지형 유형은 백두산, 한라산과 같은 화산은 물론,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은 화산섬까지 모두 주요 출제 소재이므로 잘 공부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형도를 활용하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화산 지형의 지형도 해석의 철칙은 아래와 같다.

① '등고선' 체크

② '특별한 지형 표시' 체크 (절벽, 하천, 파인 곳, 솟은 곳 등)

③ '지명' 체크

①과 ②는 보통 스스로 체득하여 잘하는 편인데, ③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고위 평탄면처럼 생긴 곳이더라도 우측에 동해라 표시되어 있고, 정동진이라는 지명이 쓰여 있다면 '아 해안 단구구나!'라고 생각을 정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명'이다. 내 지형도 해석에 가장 정확한 객관적 근거를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지명이므로, '지도, 지형도에 지명이 있다면 해석에 반드시 사용할 것!' 꼭 명심하자

또한, 화산 지형 문제는 주로 다른 지형과 복합하여 지형도 문제로 출제되는데, 이 때문에 지형도 해석이 생명이다. 특히, 화산섬인 제주도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과 복합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편인데, 지형도를 보고 두 지형을 빠르게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카르스트 지형/화산 지형>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의 지형도가 나왔을 때,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고선 이다. 기생 화산과 같은 지형은 화산의 형태를 띠므로 화구를 표현하는 저하 등고선 의 간격이 뻣뻣하다. 즉, 경사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반면, 카르스트 지형은 지표가 완만하여 수분이 지속해서 공급되어야 잘 발달하므로, 주변 지형이 구릉지더라도 돌 리네 등을 표현하는 저하 등고선의 간격이 널널하다.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이다. 또 한, 카르스트 지형은 화산 지형과 달리 하천이 지나는 곳에 주로 발달하므로, 하천과 같은 지형이 지형도에 표현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석회 동굴과 용암 동굴의 비교는 지형도가 아니라 지형의 위치가 표현된 지도나 지형 의 사진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하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에서 화산 지형은 제주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아닌 곳이 카르스트 지형일 것이다. 이 유형은 이분법 아래 개념과 차이점을 정립하고, 비교하는 연습을 해놓으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은 거시적으로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 다. 그 특성이 선지에 출제되기 때문이다. 공통점으로는 모두 지표수의 부족으로 주로 발농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이 점을 제외하면, 내인적 작용(화산 활동) ↔ 외인적 작용(기반암 용식), 신생대 현무암 ↔ 고생대 석회암, 현무암 풍화토 ↔ 석회 암 풍화토(테라로사) 등의 차이점이 더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화산 지역은 정말 자주 출제되는 필수 개념이므로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의 위치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백두산, 울릉도, 철원 용암 대지, 제주도(한라산)는 키워드를 엮어 외우는 방법으로 지형의 특징을 공부해 두도록 한다.

ex) 백두산 - 칼데라호, 복합 화산.

울릉도 - 칼데라 분지, 이중 화산, 알봉.

철원 용암 대지 - 열하 분 출.

제주도(한라산) - 복합 화산, 화구호

•복합 지형도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쌍 중 하나인 고위 평탄면과 침식 분지는 등고선의 배열을 확인해서 구분한다.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해발 고도의 수치가 높아지면 고위 평탄면, 낮아지면 침식 분지이다.

•복합 지형도 문제에서 지형도만 봐서는 바로 어떤 지형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수 있다. 이 때, 지형도에 지역명이나 근처 지형의 명칭을 주곤 하는데, 평소에 지역 지리, 지명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주어진 지명만으로도 어떤 지형인지 판단이 가능할 정도 로 강력한 힌트가 될 수 있으므로, 지명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자

•화산 지형이 포함된 해안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이 포함된 하천 지형 또한 자주 출제 되는 소재이다. 화산섬에서 화산 지형과 해안 지형이 모두 나타나고, 카르스트 지형 은 주로 하천 근처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복합적 비교를 하기보다는 두 지형이 합쳐져 있는 지형도를 보고 어떤 지형들이 나타나 있는지를 구분하는 정도에 그치므로, 기본적인 지형도 해석 연습과 각 지형의 특성 공부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철원 용암 대지는 굉장히 특수한 지형이다. 다른 화산 지형과 달리 열하 분출로 형성 되었으며, 현무암질 화산 지형임에도 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항상 용 암대지는 '배후 산지 + 현무암층 + 충적층 + 하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생각하자.

<하천 지형>

•하천 문제는 주로 지형도를 제시하고 특정 지형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 러나 하천의 위치나 하계망 개념을 묻거나 혹은 대놓고 특정 하천 자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단원이니 꼼꼼히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하류와 상류, 자유 곡류천과 감입 곡류천, 서·남해와 동해, 후빙기와 빙기는 모두 서로 반대 값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알아두는 것이 좋지만 외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한쪽 값만이라도 정확히 알아두자. 나머지 하나는 반대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는 두 지형의 지형도를 비교하는 문제는 쉽다. 오히려 자유 곡류 하천과 범람원 지형도를 내거나 감입 곡류 하천과 하안 단구 지형도를 내고 특징을 묻는 등 하나의 지형도만 제시하는 경우가 더 까다로울 수 있다. 최근에는 범람원과 선상지가 동시에 등장하는 등, 여러 지형이 나타나는 하나의 지형도를 제시하고 특징을 묻는 까다로운 문제도 출제되었다. 그러나 보통 단순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기에 논밭과 과수원 표시, 절벽 표시, 등고선 등의 '힌트' 들을 잘 취합하면 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대신 지형도의 힌트들을 잘 뽑아내는 연습을 해두자.

•간조 하천과 같은 조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자. 만조는 만석, 만월 등에 쓰이는 滿(찰 만) 자를 쓴다. 즉, 밀물 시기에 바닷물이 가장 많이 차 들어 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간조는 썰물 시기에 바닷물이 가장 빠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기억 해둬도 틀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하천 지형, 특히 범람원이 나올 때 자연 제방과 배후 습지를 비교하거나 하천 퇴적 지형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 지형도를 보고 어떤 지형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힌트가 논·밭·과수원 기호이다.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 등 여러 지형에서 어떤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한결 수월 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위치나 특징을 외우고 있는지 대놓고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 ‘하굿둑이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각 하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묻는 것이 예시다. 심지어 지역 지리와 결합해 출제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요 하천은 자연 지리라는 생각보다는 인문 지리라고 생각하고 ‘특징을 외우는’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 자유 곡류 하천과 감입 곡류 하천이 한 문제에 한꺼번에 나왔을 때, 보통 등고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게 표현되어있고, 하천 주위의 지형의 등고선이 더 뾰뾰한 지형도가 주로 산지, 상류에 위치한 감입 곡류 하천의 지형도일 것이다.

그러나 두 유형의 하천 중 하나만 단독 출제될 때에는 둘 중 무엇인지 지형도만 보고 바로 파악이 힘들 때도 있다. 자유 곡류 하천이라도 배후 습지와 자연 제방의 표현을 위한 등고선이나 주변의 고지를 표현한 등고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팁’ 하나를 알려주자면, 지형도를 보기 전에 먼저 밑의 선지를 보자. 만약 하안 단구와 관련된 ‘융기’나 ‘하방 침식’과 같은 단어들만 선지에 계속 쓰여 있다면 제시된 하천은 감입 곡류 하천일 것이다. 반대로 범람원과 관련된 ‘범람’이나 ‘퇴적’과 같은 단어들만 선지 대부분을 이룬다면 제시된 하천은 자유 곡류 하천일 것이다. 다만,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를 때 즉, 4개의 선지가 맞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천 퇴적 지형에서 범람원은 가장 자주 출제되므로 자주 보아 익숙해 지형도 해석을 잘 해낸다. 그런데 선상지나 삼각주는 그저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상지는 반드시 부채꼴 모양을 제시해줄 것이고, 삼각주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어 지명을 잘 활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가끔 침식 분지를 고위 평탄면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때는 등고선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형도를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 나눌 때, 중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진다면 침식 분지이고, 중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진다면 고위 평탄면이다.

•해안 지형 문제는 보통 여러 해안 지형을 모아 놓은 지형도를 제시해주므로, 해안 지형들이 지형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고 있어야 함은 물론 시험장에서 지체가 없도록 지형도 해석 연습을 자주 해놓아야 한다.

•지형도에서는 각 지형을 ‘A~D, (가)~(다)’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속으로 풀기보다는 A~D가 무엇인지 적어가며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항상 단순히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지형은 왜 형성되었지?’라며 성인을 생각하며 푸는 연습을 하자. ‘A는 B로 인해 형성된 지형이다.’라는 선지가 충분히 나올만한 선지 이고, 개념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 파트 행동영역

기본적으로 기후 문제는 기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푼다. 알고리즘에 따라 명확하게 매칭을 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하고, 시험장에서도 알고리즘과 외워놓은 수치로 추 론을 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

•기후 지표에서 특수 값은 매우 튀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키나 힌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하는 값이다. 반드시 특수 값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 특수 값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기후 지표들을 먼저 비교한다. 차이가 덜 나는 지표는 웬만하면 차후에 처리하도록 한다.

•본인이 잘 풀었는지 의문이 들 때는 매칭시켜야 하는 값들이 모두 하나씩 맞아 떨어 지는 지를 통해서 체크한다. 예를 들어, 기후 A, B, C, D와 지역 가, 나, 다, 라를 매칭시켜야 한다면 모두 각각 일대일 대응이 되어야 올바른 풀이를 한 것이다. 그 이 후에는 선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옳은 것을 골라야하는데 옳은 것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매칭 자체가 일대일 대응이어도 틀리게 매칭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와 생활양식, 바람, 기후 변화, 그리고 도시 기후 등의 문제는 보통 어렵게 출제 되지 않는다. 모두 기본적 개념으로 풀리는데, 출제 빈도가 낮다보니 학생들이 학습을 소홀히 해 개념 부족으로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푸는 것이다. 항상 까먹지 않게 공부를 하고 절대 쏘지 말자. 이 파트들은 안 까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기온 역전 현상은 '맑고/일교차가 큰 날/새벽에 잘 일어난다.'라는 키포인트만 머리에 넣어두면 된다.

•기압도는 무조건 고기압을 먼저 체크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본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어떤 풍향인지를 확인하려면 고기압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수 문제는 지형성 강수(바람받이 사면에서의 강수)인지, 전선성 강수(장마 전선에 의한 강수)인지, 대류성 강수(한여름의 소나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강수량의 차이는 바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장마나 소나기는 대 부분의 지역에 비슷하게 내리기 때문에 강수량의 차이는 바람에 의한 지형성 강수가 만들기 때문이다. 강설도 똑같다.

•모든 그래프 해석 기후 문제는 그래프의 도형과 표시가 어떤 변수를 나타내는지 정확히 체크하고 풀어야 한다. 강수량인지, 강수 집중률인지, 연평균 기온인지, 최한월 평균 기온인지 등의 정확한 변수 체크가 핵심이다.

•기단 문제는 어떤 시기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단이 우세한지 인지해놓아 야 한다.

•기후 변화 문제는 대부분 지구 온난화를 기본으로 한다.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바뀔까?'라는 의문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니 모든 가정을 기온 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 된다.

•자연재해 문제는 발생 시기로 푸는 것이 제일 편하다. 발생 시기와 다른 지표가 함께 주어졌다면 발생 시기를 먼저 처리하고 시작한다.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별 수치를 제시한다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가장 잘 일어날까를 생각한다.

•식생 분포 문제에서 수평적 분포는 위도에 따라 북부지방으로 갈수록 추운 기후에서 사는 식물들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직적 분포는 산꼭대기같이 고도가 높은 곳으로 갈수록 추운 기후에서 사는 식물들이 자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문지리 파트 행동영역

<도시파트>

•전통 촌락의 취락 입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지만 생각하면 된다. 농사를 주로 짓고 살았으니 물을 얻기 쉬운 득수가 편한 지역에서 모 여 살았을 것이고, 지금처럼 홍수가 일어나도 막아줄 방제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 를 피하기 쉬운 지형을 선호했을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풀면 된다.

•집촌 산촌 문제는 여느 이분법적인 개념과 같이 한 쪽만 이해하고 암기하면 다른 쪽 은 반댓 값을 갖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집은 모일 집(輯)촌이고 산촌은 흩어질 산(散) 촌이다. 즉, 모여사는 동네와 흩어져 사는 동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풀면 편하다. 집이 다 흩어져서 사는데 언제 그렇게 힘들게 모여서 일을 같이 할까. 당연히 그러니 협동 노동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 발달 문제는 대체적으로 도시가 발달된 과정을 그래프 추이로 나타내고, 그걸 해석하는 문제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보다는 빠른 해석에 집중한다. 특히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값들을 선지로 넣어서 시간을 뺏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못 찾겠으면 패스한다. 또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선지 판단한다.

•도시 계층 간 비교는 쉽게 생각해서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vs 촌 도시들로 생각하고 푼다. 서울이 당연히 중심지 기능이 많을 것이고, 서울에 영향을 받는 배후지의 범위 도 넓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만큼 큰 대都市는 거의 없으니 도시 수도 적을 것이다. 거기다가 서울같이 큰 대도시들은 도시 수가 적어 띄엄띄엄 위치해있으니 도시 간 거리도 멀 것이다. 이렇게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 vs 촌 도시로 생각을 하면 까먹더라도 비교가 가능하다.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 또한 암기보다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에 집중 되어있다. 따라서 도시 발달 문제와 같이 애매한 선지 넘기기와 끝까지 선지 판단을 하는 행동 강령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옳다.

•또한 도시 수와 인구 비중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요즘의 트렌드인데, 이런 문제는 위 주기보다는 도시체계의 기본 개념+해석으로 푸는 것이 옳다. 고차 중심지일수록 도시의 수가 적으니 도시 수 비중은 작을 것이고, 인구가 많으니 인구 비중은 클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증가추이나 상대적 비교를 해석하면 된다.

도시 간의 인구 이동과 상호 작용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은 1.가까운 곳일수록 2.고차중심지일수록 더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기본 일반성의 원칙 하에 푼다. 이 도시와 이 도시가 상호 작용을 많이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푸는 것이 옳다.

•대도시의 구간 비교는 가장 뚜렷한 서울을 중심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완전 도심 역할을 하는 종로구, 중구 vs 도심과 교외의 특성 모두 가지고 있는 강남구/영등포구 등 vs 아예 주거지구의 대표적인 구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의 대표 격인 종로구, 중구, 강남구, 그리고 노원구 정도는 위치를 알아놓는 게 나름 큰 힌트가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산업단지와 공업시설이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을지로를 비롯한 제조업이 서울 내에서는 활발한 중구까지 또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부산과 대구도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들의 중심인 '중구'의 위치만 알아둬도 좋다.

•수도권은 도시 간 특성 비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중심인 서울 근교 vs 경기도 외곽을 기본 바탕으로 각각 고차도시와 저차도시를 비교하면 된다. 다만 수도권 주위의 주요 도시들은 위치를 외워둬야 한다. 예를 들어, 평택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완전 근교라고 할 수 없는 위치지만 이천처럼 배후 농촌 특성 보다는 공업적, 도심적 성격이 큰 도시기 때문이다. 이런 변수를 제외하기 위해서 파, 성남, 용인, 수원, 고양, 평택, 안산 등의 도시들은 위치를 암기하는 것이 좋다. 이제 평가원이 5번이 넘는 횟수동안 수도권 주요 도시의 인구/위치는 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간 인구 지수는 무조건 도심 > 배후 농촌(완전 교외) > 도심 주변이다. 왜냐하면 도심 주변에는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고 인구를 다니는 인구들이 많아서 도심으로 빠지면 낮에 유동 인구가 적지만, 배후농촌과 같은 완전 교외는 거기서 살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 주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은 결과가 나타난다.

•도시/구별 상대적 비교를 할 때는 그 변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주간 인구 지수, 평균 지가 등의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도시 인구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 절대 뜻을 애매하게 알거나 대충 아는 용어가 없어야 한다. 그래야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반성에 따라서 '이 지표가 어떤 지역에서 높은 값을 가질까?'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 파트>

•재개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문제는 평가원이 가장 좋아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나온다. 전체를 철거하고 새롭게 개발하는 철거재개발과, 기존 건물을 최대한 유지/보수 하는 수복 재개발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이런 유형은 기본적인 재개발의 특성을 알아둬도 좋지만,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를 보고 상식적인 선에서 맞혀도 정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개발 문제는 용어를 사용해서 개념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역류효과 등의 도시 개발과 관련된 용어는 그 정의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한국지리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단어들이면 충분하다.

•지역 개발 방법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 결국 성장 거점 개발 vs 균형 개발 이분법 구조로 나올 것이다. 이 때 정부주도로 집중적으로 하는 개발 도상국식 개발과 국민들이 참여하며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개발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된다.

•국토 개발 과정 문제는 학생들이 가장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나왔을 경우 당황하는 파트이다. 문제 오답률이 대부분 40%내외로 잡히는 이유가 학생들이 내용을 나중에 해야지 하고 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조건 1~4차 국토 개발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나 각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대표 정책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해놓자.

- 1차-성장 거점개발, 역류효과, 개발 제한 구역, 기초 자원 종합 개발
- 2차-광역 개발, 점이적 개발, 수도권정비계획, 인구 지방 분산 정책, 자연환경 보전
- 3차-균형 개발, 환경보전, 분산형 개발, 수도권정비계획, 도농통합시, 고속교류망
- 4차-균형 개발, 수도권정비계획, 기업도시, 혁신도시, 녹색국토

•국토 개발 과정 문제도 결국 문제풀이의 핵심은 이분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내용들을 비교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자. 예를 들어 거점개발인 1차 국토 종합 개발계획의 투자방식이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는 균형개발 방식이라고 오선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 만약 개념을 까먹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1차가 하향적이고 구세대스러운 기본적인 정책을 펼쳤을 것이고 4차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고려하는 신세대스러운 정책을 펼쳤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가정 하에 문제를 풀어도 충분히 풀릴 것이다.

<에너지 파트>

•에너지 파트는 꼭 발문을 빠르게 체크하고 들어가자. 소비(공급)인지 생산인지 발전 인지 발전설비 용량인지 등의 어떠한 기준의 자료를 보여주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관건이다.

•다른 파트에서도 필수지만, 특수값을 먼저 처리하자. 지역별 소비 자료가 먼저 나왔으면 우리가 아는 특수값인 제주-석유 세트를 처리하고, 에너지원별 자료가 먼저 나왔으면 특수값인 원자력-경북, 전남, 부산, 울산을 먼저 처리하자. 가장 정보가 없고 비특수한 값은 미뤄두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구조 그래프가 연도별로 각각 나왔을 때는 다른 부분을 보지 말고 가장 최근 자료만 확인한 후, 우리가 아는 통계를 대입하자. 단, 소비량의 변화 추이로 나왔을 때는 변동을 확인해서 추론해야 한다.

•각 에너지의 특성을 미리 완벽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선지에서 에너지원끼리 비교를 할 때는 특성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서 에너지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어도 선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송용 연료라는 키워드는 석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석유와 묶어서 나올 것이다.

•지역 에너지 문제는 어디에서 무엇을 왜 많이 쓸까? 라는 의문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 충남은 화력 발전소가 있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석탄의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이다.

•비율이 아니라 총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온다면 각각의 합을 구해서 총량 순서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다.

•지역별 에너지 소비(공급)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정한 에너지원을 많이 소비할 이유가 있는 곳부터 처리한다. 항상 추론의 기본은 '일반성'이고, '일반성'은 지극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ex | 울산&전남&충남(석유 화학 단지) 충남&경남(화력 발전소)

•자원 생산 관련 문제는 복합적으로 주어졌을 때 지역별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해석 한다.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서도 해양-경기와 같이 특수한 값부터 처리를 하고, 태양광&풍력&수력의 지역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농공업 파트>

•농업과 공업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지역성을 통한 추론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문제 풀기 전에 다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통계가 어떻게 변화해서 나오든, 어떤 지표가 주어지든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푼다. 어떤 특성을 지표로 내더라도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겠지' 하면서 풀면 맞을 수밖에 없다. 대신 기본적인 농업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농촌의 입지와 재배 방법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묻는다면 쉽게 완전 농촌 vs 도시 근처 농촌 구도로 놓고 특성을 체크하며 풀면 된다.

•농업 추론 문제에서도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특수 값 처리이다. 농업 특성이 나오든 재배 현황이 나오든 간에 제주도는 가장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먼저 처리하는 버릇을 두자. 작물의 경우 과수가 재배량과 특화도 모두 경북과 제주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장 특수하다. 그래서 과수를 먼저 처리하면 된다.

•내가 평소에 알아두지 못한 지표를 제시하고 추론을 시킨다면, 먼저 아는 지표를 처리하고 그 이후에 모르는 지표는 상식선에서 처리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우유 생산량 비중'을 물었다면 '우유는 상하기 쉬운데, 국내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사니까 수요도 많겠다. 따라서 수도권이랑 가까운 곳이 우유 생산량이 많지 않을까?' 라고 추론하면 된다.

경·지 구분과 관련된 문제를 준다면 국내의 큰 산줄기를 생각하면 된다. 산줄기를 끼고 있는 동쪽이 대체적으로 밭이 많을 것이고 평야 지대인 서쪽이 논이 많을 것이다. 만약 산 지형을 처리 했는데 남은 곳이 평야 지역이라면 어떡하냐고? 걱정할 필요 없다. 평가원은 그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다른 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다양한 농업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까지 추론시키는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한 지표에서 가장 특수한 지역을 처리시키고, 그다음 지표에서 가장 특수한 지역을 처리시키고, 마지막에서야 남은 지역을 처리시키면 된다.

•공업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 묻는다면, 항상 공업은 고도화가 되어 더 고차원의 공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

•대기업과 소기업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총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는 중소기업이 많지만, 출하액은 대기업이 더 많다.'라는 전제를 두고 문제를 풀면 풀기 쉽다.

•공업의 특징과 입지에 따른 분류는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 선지로도 정말 많이 나온다. 따라서 외워놓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지만 문제를 풀 때 까먹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어휘의 뜻에 따라서 추론을 해보자. 예를 들어 '자동차 공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초 소재 공업이다.'라고 나왔을 때, 기초 소재 공업=가장 기본 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공업인데, 자동차는 조립을 해서 만드니까 오션지 처리를 하면 된다.

•공업에서도 당연히 특수값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 농업에서의 특수 값이 제주라면, 공업은 울산이다. 따라서 울산은 웬만해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어 울산 내의 공업 비중은 선택적으로 외워도 괜찮다. 당연히 평가원은 다른 지표를 보고 추론 가능하게 제시를 하겠지만, 울산 내에서 바로 추론을 해버리면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공업 문제가 나왔을 때는 웬만한 '수'와 '양' 지표들은 수도권이 가장 크다. 다만 출하액은 영남권이 수도권보다 크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영남에는 최대 공업 도시를 포함한 공업 특화 지역이 분포해있다.

•시도별로 나왔을 때 공업에서의 특수 값은 울산이기에 울산이 공업과 관련된 특화 지표(1인당 지역 총생산, 1인당 노동 생산성) 등이 높지만 총량 지표(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은 경기가 높다는 점을 잊지 말자. 공업에서도 결국 '수'와 '특성'은 분리해서 풀어야 한다.

•각 공업의 특성을 묻고 추론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특수한 값 선 처리, 나머지 값 상대 비교로 푼다. 제조업별 특성을 줘서 어느 공업인지 추론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가장 영세해서 출하액이 적은 섬유와 출하액에 비해 종사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정유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공업을 특성으로 상대 비교를 해서 추론하면 된다.

•지역별로 자료가 주어졌다면 가장 많이 빈칸이 채워져 있는 지역부터 확인한다. 그 지역들의 주요 공업의 종류를 보면 당연히 1차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 것 이고, 그 지역 내에서 빈칸이 있어 추론해야 하는 공업이 무슨 공업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렇게 얻은 값을 나머지 지역에 대입해서 풀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다.

<교통, 통신, 서비스업>

•기본적으로 상업/서비스업 문제는 기본개념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모를 갑자기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하는 어휘의 정의를 기반으로 공부해놓자.

•결국, 서비스업 문제는 소매업 비교 문제가 대표적이니 이 유형 위주로 푸는 행동 영역을 정립해놓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로 먼저 접근하도록 한다. 매출액 혹은 판매액 등의 지표는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해 기준으로 출제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가장 후순위로 미룬다.

•만약 매출액이 결정적인 지표로 나왔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나머지 지표를 통해서 얻은 값들을 넣고 추론을 하면 된다. 결국, 매출액도 편의점, 백화점이 낮고 나머지 세 가지 업종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소매업을 지표만 보고 풀어내는 연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특징도 항상 인지해두자. 예를 들어 백화점은 최소 요구치가 굉장히 높고 유지가 까다로운 소매업종이라서 수요가 있을 만한 곳에만 위치해 있다. 이것만 알더라도 지역과 연계해서 나오는 응용문제도 가장 고차 도시 위주로 분포해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교통수단 문제는 항상 운송비 구조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어 놓자. 기종점 비용이 낮은 도로는 주행비용 증가율이 높고, 거기 껴 있어서 중간인 철도, 그리고 기종점 비용이 높지만 주행비용 증가율이 낮은 해운. 핵심이다. 항공은 둘 다 높다.

•수송 부담 문제는 무조건 어떤 기준인지 확인하자. '인/km'인지, 그냥 '인(人)'인지에 따라서 결과 값이 달라진다. 다만 대부분 '인' 기준으로 내기는 하지만 '인/km'로 나오면 사람을 많이 태우는 교통수단이 유리하기 때문에 철도와 항공이 인당 부담률보다 더 높아진다.

•수송분담 문제가 여객과 화물이 동시에 나왔을 때, 항상 가장 특수한 값인 도로부터 처리한다. 도로는 여객과 화물 둘 다 독보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해운을 찾는다. 여객에서 부담률이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국내에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는 결국 지역과 결합되어 나온다. 따라서 농업적 특성이 강한 지역 vs 공업적 특성이 강한 지역 vs 서비스업 특성이 강한 지역을 나누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울산, 경기, 전남을 비교할 때 당연히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은 경기가 높을 것이고,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울산이, 농업 종사자 비중은 전남이 높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지표가 높았던 지역이 1차스러운 곳, 공업에서 지표가 높았던 지역이 2차스러운 곳, 큰 도시거나 고차 지역인 곳이 3차스러운 곳이라고 묶어버리고 풀어도 상관없다. 결국, 평가원은 비교할 수 있게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 파트>

인구 파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은데, 무조건 복잡한 계산은 기피한다. 복잡한 계산은 평가원이 시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함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피를 하고 나중에 처리를 한다. 계산을 하게 되더라도 세세한 수치까지 계산하지 말고, 반올림을 해서 푼다.

•인구 부양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청·장년층 비중부터 체크한다. 청·장년층 비중은 모든 부양비 공식의 분모기 때문에 청·장년층 비중만 보고도 총부양비 비교가 가능하고, 비슷한 청·장년층 비중을 가지고 있다면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다.

•지역을 포함한 인구 구조 문제가 나왔을 때, 대도시, 촌 지역, 인구 유입 도시로 나눠서 푼다. 애매한 도시들은 출제되지 않거나 단순 그래프 해석의 용도로만 나오기 때 문이다. 대도시는 인구가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청장년 비중이 높다. 농촌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감소 중이며, 노년 비중이 높다. 인구 유입도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층들의 유입으로 유소년 비중이 높다. 다양한 종류의 지역이 나왔을 때, 인구 구조를 보고 그 지역을 도시 파트와 같이 후려쳐서 거시적으로 보고 푸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노년 부양비가 매우 높은 곳을 확인했다면, 그 곳은 촌 지역일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아도 당연히 젊은이들도 적어서 총부양비도 높을 것이라는 특성도 같이 예측 가능한 것이다.

•지역명을 주고 상대적인 인구 구조 특성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다양한 파트에서 배워온 지역적 특성과 그 지역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푼다. 예를 들어 울산이 나왔다면, 울산은 공업 도시기 때문에 경제인구가 많기 때문에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높을 것이고 중화학 공업 중심지기 때문에 성비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전남은 농업적 특성이 강하고 노년층의 비중이 높은 촌락 지역이다. 그렇다면 노년 인구 비중은 높고, 유소년층 인구 비중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 수 있다.

•지역의 인구 구조 특성 비교 문제에서도 당연히 특수값을 선처리 한다. 발문에서 서술해놓은 선택지 중에 세종(유소년), 울산(청장년) 등의 특수값들이 있다면 그 값부터 선처리하고 나머지 지역들을 추론해서 푸는 것이 좋다.

복잡한 계산을 시키는 선지는 무조건 후처리하자. 시간을 뺏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아, 뒷 선지에서 쉽게 특성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계산만을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인구 이동 문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층의 특성을 생각해서 풀도록 한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큰 도시일수록 서로 상호작용이 많다. 상호작용이 많다는 뜻은 생활 반경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이므로 당연히 이사를 고려할 때 상호작용이 많은 도시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멀리 가는 경우보다는 당 히 가까운 근처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에 권역 내의 이동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은 수도권이다.

•권역별 인구이동 문제가 나왔을 때, 충청권부터 체크를 한다. 충청권은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의 인구이동에서 순 유입을 보인다.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인구 이동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일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은 나가는 인구는 충청권으로 향하는 인구가 가장 많고 들어오는 인구는 영남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다.

•인구 특성을 묻는 단계구분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성비-38선근처, 외국인 관련 지표 -안산, 노년인구 관련 지표-고흥, 청·장년층 관련 지표-울산을 유소년 관련 지표- 세종을 우선적으로 체크 한다. 위치를 필수적으로 암기해놓자.

•다문화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잘 구분을 하자. 외국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은 일하러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가 많은 공업 지역에 많이 거주 하고 있다. 농촌에 국제결혼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총인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다. 외국인 관련 지표는 대부분 수도권이나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이 높다. 농촌이 높은 것은 국제 결혼율이다.

<지역 지리>

•기본적으로 지역 지리 문제는 주요한 지역의 위치와 특성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위치 연습은 끊임없이 해야 한다. 특히나 요즘은 공업, 에너지, 농업, 인구 등의 파트와 지역 지리를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출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전 단원에서 주요 지역으로 언급되었던 곳은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배웠던 단원에서 형성된 지역의 이미지를 생각해본다. 예를 들어 광주와 인천을 비교해본다고 했을 때, 둘 다 대도시인 것은 맞지만 인천이 산업 종사자 구조도 그렇고 제철 공업, 자동차 공업 등 공업적 성격이 수도권 내에서도 큰 편일 정도로 공업 이미지가 강한 곳이다. 광주는 일반적으로 그보다는 공업적 성격이 강한 이미지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뇌피셜이 아니라 이전 단원에서 우리가 귀납적으로 수집해온 내용을 기반으로 잡혀 있다면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성을 이용해서 푸는 것은 필수이다.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은 당연히 연구와 과학기술 관련 지표가 높을 것이다. 주요 대도시 근처의 위성도시들은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항만이랑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항이 있는 인천은 당연히 운수업이나 물류업 종사자의 비중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이 지역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깐 일반적으로 ~ 하겠지' 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평가원이 원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처음 보는 혹은 잘 내지 않던 지역을 내도 교육과 정에서 벗어난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 곳이 속한 더 큰 범위의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일반화해도 되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문제가 나와서 특성을 비교할 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디인지는 모르더라도 대구와 붙어 있는 곳과 경북 중에서도 북쪽의 산간지역이 같이 출제되어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대구와 붙어 있는 곳은 대구의 위성도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구 유입도 많고 인프라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치를 외울 때 붙어 있는 곳들끼리 약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묶어서 외우는 것이 좋다. 대신 외워놓은 그룹이 시작되는 곳의 위치는 무조건 알아놔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의 가장 서쪽인 태안을 기준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태서당아천진음충제 단이다.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약어로 묶어서 외우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평소에 잘 나오던 지역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나오는 마이너한 지역들을 대비하는데 효과적이다.

•약어만큼 효과적인 것이 큰 도시 중심을 잡고 근처의 외곽야 하는 지역을 같이 묶어서 외우는 것이다. 광주 밑에는 함나화(함평, 나주, 화순), 부산 위에는 창김양(창원, 김해, 양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워놓는다면 기본적으로 대도시의 위치는 잘 외워놓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이 같이 문제에 출제되었을 때 편하다.

• 결국 우리나라는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출제가능성이 항상 가장 높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은 이름과 특성을 역지로 묶어서라도 외워놓자. 예를 들어 고양=일산 호수공원 많고 아파트 많은 곳. 성남=사람들 많이 사는 분당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외우도록 하자. 특히 신도시나 인구 유입이 많은 위성도시 vs 공업 도시 vs 촌 성격의 도시는 너무 많이 나온 형식이다. 이제 평가원이 수차례나 수도권은 웬만한 도시의 인구와 성격을 안다는 가정 하에 출제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 권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서울vs인천vs 경기 구도로 산업구조나 인구변화 등의 지표를 비교하는 것이다. 3차 산업 중심, 고차원의 서울 vs 제조업 총량 최고, 농촌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경기 vs 애매한 인천 구도로 풀면 웬만해서는 들어맞는다. 다만 그래도 항상 지표 별로 지역과 연관해서 특성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필수다.

• 강원은 영동vs영서 구조가 아니면 비교가 힘들기 때문에 개별 지역 지리로 시도별 특색을 묻는 것이 유력하다. 따라서 주요 도시들의 특색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해 놓자.

• 충청은 서산~천안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도시 vs 대전 세종과 같은 3차 중심의 도시 vs 나머지 구도로 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 호남과 영남 또한 강원처럼 비교를 하기 보다는 개별 지역지리로 특색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호남에서 남해안의 공업 지역 vs 타 지역의 비교, 영남에서 남동 임해 공업 지역 vs 대도시(부산, 대구 등) vs 일반 지역의 비교는 가능성이 있으니 염두해 두고 특성을 공부해두자.

• 제주는 나올 가능성이 작지만, 나오게 된다면 관광/인구 유입 관련해서 높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 북한은 기본적인 특성을 인지해놔야 한다. 산지가 많고,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고, 기후는 춥고 건조한 곳이 많다는 등의 기본특성을 인지해놔야 북한을 끼워넣은 추론 문제를 풀 수 있다.

•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한국부터 찾는다. 예를 들어 각 국가의 에너지 소비 관련 지표를 문제에서 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한국일 것이다.

•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는 분야는 크게 에너지, 농업, 교통, 산업 구조일 것이다. 북한 에 관해서 다른 것 말고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 에너지: 석탄과 수력의 비중이 엄청 높다. 전력 생산에서 수력이 1등.
- 농업: 쌀만큼 많은 옥수수 생산량. 밭농사 비율 높다.
- 교통: 철도 중심의 이동. 짧은 도로 길이. • 산업 구조: 1, 2차 산업 위주

